

“찾아가는 소통·적극행정 중요”

전춘성 진안군수, 32년 공직경험담 전국에 전파 충남·호남권 읍면동장 200명 대상 특별 강연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진안군수에 당선된 전춘성(사진) 군수가 32년 공직경험담을 전국에 전파했다.

전춘성 군수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남·호남권 읍면동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권역별 워크숍에서 읍면동장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전 군수의 이번 특강은 워크숍을 주최한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의 특별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은 32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읍면장, 과장, 국장을 거쳐 선출직인 지자체장에 당선된 전춘성 군수의 생생한 행정경험담을 듣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 군수는 “군민이 원하고 세대가 원하는 읍면동장의 역할은 하나로 귀결되지 않고, 정의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다

양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찾아가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군수는 “협안 해결을 위해 직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민원인 응대로 청사 안에서 하는 역할 이외에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군수는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찾아가는 소통, △낮은 자세, △열린 군수실 등의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전 군수는 특히 “반드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미리 알려 줄 것”과 “성심성의껏 적극행정을 해 줄 것”을 읍면동장들에게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지난 24일부터 사과(후지)품목에 대해 농산물 구매사업을 실시한다.(농산물산지자유센터 자료사진)

무주군, 사과(후지) 구매 도입

11월 20일까지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구매형 사업 일괄 추진

무주군은 지난 24일부터 사과(후지) 품목에 대해 농산물 구매(매취)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농산물 구매사업(사과 후지)은 ‘무주군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구매1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구매 장소는 무주읍과 적상·부남·안성면은 안성천환경농산물유통센터(안성면 중산길 26), 무풍·설천이 무풍농산물산지자유센터(무풍면 삼도봉로 1077)에서 실시된다. 구매가격은 품위별로 차이가 있으며, 40내 ‘특’ 등급 품위 기준으로 1kg당 4천500원이고, ‘상’ 등급 기준으로는 1kg당 3천 원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개발과 공무원 윤수진 팀장은 “구매가격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사업 수행자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이 품목별 경락가격과 올해 재배 면적, 시장가격 변동추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하고, 참여 농협과 농가 및 무주군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농산물가격안정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구매사업이 팍 흥한 농가에게는 보

람을 안기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하고 신선한 무주 농산물을 공급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사업시행 4년차를 맞은 ‘무주군농산물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련 조례(2018.12. 제정·공포)에 근거·조성한 올해 80억 원의 기금으로 농산물 구매와 저장, 판매에 따른 손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무주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8천737농가에 118억여 원의 기금을 지원했으며, 2020년 사업 성과분석(영역) 결과 농가수입이 구매1형은 kg당 전국 평균 대비 31.25%, 구매2형은 32.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매 2형(모든 농산물)은 구매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올 연말까지 취급한 물량에 대한 손실운영비를 사업수행자(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가 일괄로 무주군에 청구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물 ‘자사물 오픈’ 맞이 집중 홍보

29일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서 오프라인 홍보·11월 1~11일 온라인 이벤트 진행

진안군 지역 온라인 소프몰인 ‘진안고원물’이 자사물 오픈을 맞이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은 오는 29일 전주 호성동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신규 회원가입 고객 유치에 힘쓰는 사은품 뽑기 오프라인 홍보행사를 추진하고,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할인 쿠폰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안고원물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사물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벤트를 동시에 준비하고,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전주 호성동 소재) 회원 및 기존 스마트스토어 및 자사물 신규고객 등 2만여명에게 홍보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히 임하고 있다.

먼저, 오프라인 행사로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사은품 소진 시까지 신규가입자를 대



상으로 ‘팡 없는 행운의 뽑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은품으로는 △1등 홍삼스파이용권(4장) △2등 명인명품관 체합권(4장) △3등 홍삼제품, 홍삼삼계탕,

장류 선물세트, 누룽지세트, 채담키레, 홍삼샌드위치, 진안고원 참동진쌀, 과채주스, 영검취등 진안고원물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총 13종, 50여점의 상품이 제공된다.

행운의 뽑기는 진안고원물 자사물 신규회원 가입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행운의 상품을 뽑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홍삼간식과 진안고원물 예요백을 증정하는 등 푸짐하게 준비했다.

온라인 행사로는 연말까지 신규회원 가입자에게 주문금액 최소 2만원 이상일 때 바로 사용 가능한 3,000원 적립금을 지급하고,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 동안 자사물을 통해 매일 300매 한정으로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할인쿠폰은 1인 1매 한정으로 제공되며 이벤트 기간 중 매일 아침 9시부터 당일 한정 쿠폰 소진 시까지 다운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인기 상승

장수군은 군에서 생산한 국내육성 사료작물 트리티케일이 주목을 받으면서 재배 면적이 120ha에서 160ha로 확대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료적 가치가 높은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작물로, 가축이 좋아하는 밀의 품질과 추위에 잘 견디는 호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축의 운동력과 지구력 증진에 효능이 있는 육타코시놀과 항산화 능



력이 뛰어난 이소오리엔틴 함량이 높게 함유되어 있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양질의 사료작

물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축산농가에 동계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적기 파종을 당부하고 있으며, 지역에 적합한 트리티케일의 재배시기는 10월 중·하순에 심어 이듬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수확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확 동계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재배 확대를 통해 조사료 자급을 향상과 사료비 절감 및 한우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방문객 눈길 사로잡아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축제에는 △호스페스티벌 △삼마체험 △동물농장 체험 △사과나무시체험 △사과볼링 등 6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2,500석 규모의 셀프식당인 ‘장수한우랑’이 열려 방문객들에게 오감만족의 즐거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호스페스티벌에서는 마삼무예 공연을 필두로 VR삼마체험, 말 먹이주

기 체험, 삼마체험 등을 진행되고, 어린이 말관련 교구체험에서는 조랑말 색칠하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풍선공예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펼쳐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메인무대가 상시 운영돼 각종 공연과 경연으로 축제 열기를 더했다.

오는 30일엔 한우랑사과랑 가요제가 메인무대에서 열려, 예심에서 선발된 12개 팀이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상금 340만원을 두고 마지막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무주군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군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고용하려는 농가는 다음 달 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2년 연속 수상

진안군은 27일 필리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행정혁신 부문 2년 연속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창의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견고한 조직문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 군민이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이라는 비전에 담긴 진안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지역 경제의 핵심축인 진안읍의 기능을 되살려 진안군 전역으로 퍼지는 경제효과를 얻기 위해 도시계획 정비, 노후화된 상가·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주축 사업인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일손센터 설립 및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